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 김명순을 중심으로 —

이 덕 화**

1.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몸의 정치학
2. 욕망의 정치학, 섹슈얼리티
3.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해방의 담론
4. 내면화된 타자의식
5. 문학적 진실의 문제

초록

몸의 정치학을 통해 신여성이 이루려고 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은 바로 근대적 개체적 자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의 형식인 것이다. 그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며, 이 여행은 철저히 구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당위론을 통하여, 사회와의 합일을 꿈꾸는 근대 자아의 실천이라는 화두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은 여성으로서 기존 결혼제도의 희생자로서의 삶보다는 주체의식을 가진 자신들의 삶을 불태운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히 기존의 사회제도나 도덕을 부정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고, 그들은 그 길만이 진리라고 믿었다. 한일합방은 그들의 국가의식을 자극했고, 그 자극은 기존의 제도나 도덕의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새로운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극복하려고 한 사회제도나 도덕적 관습은 그들의 내면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타자의식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자신 속에 자리잡고 있는 타자의식을 극복

* 이 연구물은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평택대 교수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주장이 또 그들의 삶이 지향하는 바가 옳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들의 신념체계가 현실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들의 신념체계는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나와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와의 합일은 세계와의 합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념체계는 신여성이라는 그룹 안에서는 진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외의 바깥에서는 ‘타락’ ‘방종’의 얼굴로 비춰졌다. 그들에 대한 끝없는 지탄과 비난은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타자의식을 통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

문학의 진실성은 그 당대의 현실과 전체적인 연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자유연애라는 우연적 계기가 그 당대의 필연성-경제적인 토대라든가, 일본 제국주의하의 현실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려졌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럴 때만이 문학작품이 현실적 힘을 가진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소외시키지 않는 현실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역동적인 힘이며 이는 바로 여성문학의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 등 흐름의 몸의 미학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1.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몸의 정치학

근대성이라는 주제는 한국문학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주제로서, 신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는 근대성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¹⁾ 이는 또한 여성문학이 주체적인 문학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근대에 관한 논의는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토대나 사회 구성체와 관련해서 1980대에 활발히 이루어졌었고, 그의 대한 성과도 있었다. 문학에서는 김윤식과 김현의 기점논의에서부터 출발해, 1990년대 후반 포스터 모더니즘과 관련된 근대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창기 신여성문학을 주도했던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은 1910년대 후반기 이광수와 거의 동시기에 문학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이었다. 김명순

1) 이미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최혜실의 「신여성의 ‘고백’과 근대성」,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생각하는 나무, 2000)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다.

의 「의심의 소녀」가 『청춘』지 11호(1917.11)에, 나혜석의 「경희」가 『여자계』 2호(1918.3)에 발표됨으로써, 이광수의 『無情』(『매일신문』 연재, 1917)과 거의 동시기의 작품으로 꼽힐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이광수, 최남선을 중심으로 한 계몽적 합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계몽이성이 근대성의 이념으로 대치되고 있다.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보편적 이성 이론은 일부 주체집단의 경험을 인류의 전형적인 사례로 파악함으로써 ‘은밀하게’ 규정된 보편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²⁾ 주체집단이란 권력을 가진, 혹은 재산을 가진, 그 사회집단을 이끌어 가는 정치지도자, 부자, 전문지식인 등등의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계몽적 보편 이상이란 그렇다면 한 인간의 개성적 차이와 개인의 구체적 실존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보편적 이상이다, 그러한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보편적 이성이론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김윤식은 개화기 이후에 나타나는 한국문학은 개화기 전의 한국문학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는 그 이전 문학에서는 근대정신이 보이지 않으며 현대문학에 나타난 근대성을 일단 근대정신의 구현으로 보고 있다.³⁾ 그러면 근대정신은 무엇인가. 김윤식의 말에 의하면 자체내의 모순에 대한 극복의지로 나타난 정신이 될 것이며, 근대 문학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했다.⁴⁾ 일본제국주의 하의 우리 민족이 직면했던 과제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유교전통으로 오는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개혁, 유교의식에 의한 허위의식의 극복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서구의 계몽 합리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최남선이나 이광수는 예술의 진보를 위해서는 개인과 국민의 교화에 예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이광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초창기 신여성의 문학에도 그대로 이어진다.⁵⁾

2) 미셸 푸코,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새물결), p.77.

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4), p.16.

4) 위의 책, p.20.

신여성문학 담론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신여자』와 『여자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데 주요 내용은 여성들도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이 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정조론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자유연애의 문제는 불합리한 결혼제도와 관련 속에서 본다면 근대정신의 구현이다. 그러나 신여성들이 주창하는 자유연애는 기존의 봉건적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복의 의미를 가진다. 전복이 지닌 도덕적 성격은 혁명을 통해서 완수되든지 아니면 파멸되든지 간의 양극단의 처지에 서게 된다. 김일엽은 도피, 김명순과 나혜석은 개인적 파멸을 가져왔다. 비록 개인적인 파멸로 이어졌지만, 이것은 세 신여성들이 여성들의 특징인 감각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실천한 데서 기인된 것이다.

호르는 물결을 한 편으로 흐르게 하면 기어이 타방면으로 흐트러지고 만다. 젊고 격렬한 흐름도 그 가는 길에서 틀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이니 자연을 누구의 힘으로 막으랴.⁵⁾

이것은 감정을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해야지 도덕이나 법률 등의 사회 제도로 막는다고 그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해방은 감정의 해방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체면 때문에 웃음을 참고 끓는 피를 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

5) 세 신여성작가의 이광수에 대한 영향은 김동인의 「김연실전」에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 이 세 여성 중 특히 나혜석과 김일엽은 문학의 시작부터 이광수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김일엽이 이름을 이광수가 일본의 히구찌 이찌요(樋口一葉)의 이름을 따서 지어 주었고, 나혜석은 오빠 나경석의 친구로 이광수와 가까이 지냈다. 또 나혜석이 이혼을 할 당시 나혜석과 남편 김우영 사이에서 화해를 이광수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6)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1935.2).

다. 거기에는 쓰라린 고통은 없고 오직 희열과 만족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적 정취를 깨닫고 행동이 예술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곧 세 여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예술적 정취를 행동화한 것이다. 그들의 생활이 비록 감각적인 생활이었지만 예술과 떼어놓을 수 없는 예술과 혼연일치의 삶을 산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제도를 철저히 부정하는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항거정신을 통해서, 또 유교의식의 대외명분 의식을 철저히 거부하는 감각적 실천 속에서 나타난다. 이념을 일상적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바로 근대성의 본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옳다고 실천한 진리의 현현체로서 인정받기보다는 그 시대의 당녀로, 마녀 사냥의 대상으로 화살을 맞은 것이다.

근대적 합리적 계몽주의자인 이광수와 변별되는 것은 세 여성은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항대립적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이념과 육체의 합일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더 진보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광수나 최남산을 비롯한 남성들은 서구 근대사상의 근간이 되는 인간, 이성중심주의에 의해서 도출된 이분법적 사고체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신념과 실제적 삶이 분리된 이중적 삶을 살았다. 그러나 여성들은 비록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지만, 여성들의 생래적인 특질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념과 실제적 삶이 분리된 불일치를 보여줄 수가 없다. 즉 근대사회의 기본 틀인 몸과 마음의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혜석의 「모된 감상기」나 「이혼고백장」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아, 남성은 평소 무사할 때는 여성이 바치는 애정을 충분히 향락하면서 한번 법률이라든가 체면이라는 형식적 속박을 받으면 어제까지의 방자하고 향락하던 자기 몸을 돌이켜 오늘의 군자가 되어 점잖은 빼는 비겁자요 횡포자가 아닌가. 우리 여성은 이러한 남성을 저주하노라.⁷⁾

7) 나혜석, 「이혼고백서」, 『三千里』(1934.8~9).

나혜석은 남성들의 이분법적 사고구조, 실제로는 자신들도 향락을 즐기는 주인공이면서 체면이라는 형식에 묶여 군자연하는 것을 비난한다. 이런 남성들의 모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최린이다. 또 김동인의 아니 남성들의 아니무스인 연실은 바로 김명순이나 김일엽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이다.

초기 신여성문학이나 그녀들의 삶에서 나타난 혼란스런 모습들은 바로 남성들과 여성들의 생래적인 기질에 의해서 빚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명순이나 김일엽, 나혜석은 그녀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신념이 바로 그들의 실제 삶이었다. 그들은 온몸으로 그들의 신념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합일,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 너와 나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 속에서 나타난 몸의 정치학이 바로 그들의 문학이었고, 그들의 실제 삶이었다. 그들의 문학은 실제 삶을 떠나서 생각할 수도 없고, 실제 삶을 떠나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체, 너와 나의 만남을 실현해 내는 곳이다.

세 신여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학과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몸의 정치학은 육체와 정신, 주체와 객관, 이성과 감성의 합일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서 진실과 마주서 있다. 근대 계몽 이성중심주의는 하나의 진리체계, 혹은 거대담론만을 인정하는 세계에서는 생명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성,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지식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 바로 자신들의 인간이기를 주장하는 것은 체제나 관습에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들도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몸무림치면서 제도로부터 이탈하려고 했고, 그들도 인간임을 부르짖고 살려고 했다. 그들은 글쓰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의 몸으로 부딪치며 그들이 믿는 진실을 그대로 수행하려 했다.

몸의 정치학은 세계의 실재, 현실적인 삶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

다.⁸⁾ 현실적 삶 즉 일상적 삶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행위를 긍정하는 것이며, 이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의 방식인 것이다. 몸의 욕망이야말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하게 바랄 만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금 여기의 삶에서 최대의 쾌락을 얻는 것이다.

근대성은 현실을 개혁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것을 일상적 삶 속에서 구현하려는 구체성 속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세 여성이 진정한 인간으로의 길을 실천으로 채택한 자유연애라는 것이 혼자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속에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서 모순이 발생한다.

2. 욕망의 정치학, 섹슈얼리티

김동인은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세 명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1939년에서 1941년에 걸쳐서 「김연실전」⁹⁾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김명순이나 나혜석은 행방불명, 김일엽은 이미 불교에 귀의한 이후에 발표한 작품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는 세 여성이 이미 문학계를 떠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거리가 확보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품이 발표되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작품은 김동인의 악마주의가 동원된 실험작품으로 의도된 것이겠지만, 여성들에 대한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을 타자화시킨 극단적인 예로서 문학사에 각인될 것이다.

김동인은 여기에서 연실이를 천하의 바람장이, 자유연애의 선봉장이로만 천하에 부끄러운 여자로 묘사하고 있다. 연실이 학창시절, 문학 수업

8)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한길사, 1999), p.36.

9) 「김연실전」은 김동인이 1939년에서 1941년까지 3회에 걸쳐서 『문장』지에 발표한 소설이다. 첫회가 「김연실전」, 두 번째 회에는 「선구녀(先驅女)」, 세 번째 회에는 「집주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였다.

시기에는 조선 여성들을 연애를 통해서 성적인 해방을 시키겠다는 선각자적인 각오로 자유 연애를 손수 실천했지만, 나중에는 가난 극복 수단으로 성을 매매하는 타락한 여인으로 그리고 있다. 또 김일엽의 역으로 등장하는 최명애나 나혜석의 역으로 등장하는 송안나 역시 연실과 다름 없다. 그들은 다같이 작품 없는 문인으로 생계의 수단으로 자유연애를 실천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들은 서로 이 남자 저 남자를 뺏고, 빼앗기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일방으로 연애라는 동정을 밟지 않고 결혼하여 일생을 보내는 조선여성을 해방하여 연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선각자에게 깊어지운 커다란 사명의 하나이라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을 널리 또 빨리 퍼뜨려야 할 것이라 보았다.

문학상에 표현된 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찌르르하였다는 「연애」와 재미나는 소설을 읽은 뒤에 한동안 느끼는 감동은 동일한 감정이라 보았다.

즉 연애는 문학이요, 문학은 연애였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생 전체였다.¹⁰⁾

김동인은 위의 인용문에서 신여성들 연애나 깨우치는 선각자로 그리면서 조롱한다. 이와 더불어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그리고 있다.¹¹⁾ 그러나 세 여성들의 문학 작품 혹은 실제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남성문학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왔던 개인의 성적인 욕망을 자연스런 인간의 욕망으로 부각시켰던 것이다. 사적인 일상생활의 성적인 욕망을 사회적 공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이들의 공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성적 욕망은 가부장적 제도에 의해서 규제되어 왔고,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우선 성적인 해방부터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자

10) 김상배 편, 「김탄실」, 『한국근대여류선집』 2(솔피, 1981), p.63.

11) 이러한 태도는 김동인의 개인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존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뜨린다.

각이 우선 필요한 것이다.¹²⁾ 그 동안 성의 문제는 남과 여, 친족관계, 세대를 통하여 오랫동안 통합되어 있었다. 비로소 이 세 여성에 의해서 관계로부터 끊어져 나온 조형적 섹슈얼리티(plastic sexuality),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의식적으로 혹은 성찰적으로 만들어 가는 성이라는 의식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¹³⁾

그 동안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서 한 인간의 개성보다는 집단적 이념에 종속된 인간형, 정절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서의 춘향이라든가, 효의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서의 심청이 같은, 집단적 표상으로서의 인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신여성들의 자유연애에 의한 해방은 개체적 인간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의 의미를 가진다. 김명순의 「이상적 연애」에서는 개체적 인간과 인간이 융화한 심령끼리 최고 조화적 생활상태라고 표현한다.

연애를 갑은 이르기를 ‘홍’이다. 을은 이르되 ‘청’이다. 병은 말하되, ‘백’이라고 각각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여 혹은 이성애에 의하여 진기한 말들을 나열할지라도 종족의 천만 생명들이 각각 별다른 개성을 가지고 서로 융화한 상태를 몇 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궁정하도록 언급하려 함은 부자유한 형틀을 만들고 그 안에 연애가 들어맞나 안 맞나를 시험해보려는 것 같이 무리한 듯하다.¹⁴⁾

위의 글은 인간의 개성이 다양하듯이 연애의 형태도 다양한 데, 그것을 일률적인 형틀, 즉 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연애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기는 힘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명순은 연애 아닌 비연애가 무엇인가를 열거한다. 여기에서 김명순은 현대적 의미의 개체적 자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김명순은 이어서 ‘모든 남자와 여자의 같은 이상을 품고 결합하려는 상태’로 어디까지나 연애를 정신적 이상의

12) 미셸 푸코, 앞의 책, p.10.

13) 위의 책, p.50.

14) 김탄실, 「이상적 연애」, 『조선문단』(1925.7).

결합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글¹⁵⁾에서는 사랑은 사람의 인격완성이 어렵듯이 힘들게 오는 것이며, 참 사랑은 민족적 설움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민족적인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것은 개체적 사랑을 통해 대아적 사람으로 나아가는 대승적 진리의 면모를 보인다. 또 사랑은 자기를 아는 기초 위에서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개체적 사랑을 제시한다.

안다는 것! 안다는 것! 이 한마디가 세상에는 제일 귀한 말이 되어진다. 먼 저 자기를 안 다음 남을 아는 것, 이것만이 귀하다. 이것이 사랑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야 편할 것이다.¹⁶⁾

농업생산이 기초인 이조 봉건사회에서는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었다. 그 시대의 성은 결혼과 출산의 기초였고, 노동력과 신분세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즉 광범위한 친족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생산과 상류계층의 신분세습을 위한 혈족보존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다. 종족보존과 신분세습을 위한 혈통의 순수성이 강조되고, 이는 자연적으로 여성의 정절로 이어졌다. 여성의 정절 강요는 인간을 감정과 욕망을 가진 인간으로보다는 그 당대의 유교의 이념이나 가족제도의 도구화, 사물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당대의 보편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날 이때까지 몰상식한 부모의 절대친권 하에 자라나 겨우,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인정이 무엇인지 분별과 지각이 들자마자 결혼식이라는 형식적 반종문서 같은 한 장에 팔려 부모의 손으로부터 보도 들도 못하던 남자의 손에 넘어가면 무조건 한 제재와 전횡방사(專橫放肆)한 부권 하에서 고개를 못들이고 후 천행으로 남궁의 총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만 육욕과 물욕을 만족시키는 기계가 되어 (...중략...) ¹⁷⁾

15) 김명순, 『생명의 과실』. 여기에서는 김상배가 편집한 앞의 책을 참고한다.

16) 김명순, 『봄거리에 서서』, 『신여성』(1924.3).

17) 霽月, 「부인의 각성이 남자보다 긴급한 소이」, 『여자계』 2호(1918.3).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은 새로운 계급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치화 과정이다.¹⁸⁾ 전자본주의 단계의 성은 종족에 대한 봉사, 혹은 헌신이였다. 개인의 욕망이나 쾌락과는 상관없이 중매혼을 통하여 신분이나 노동력이 재생산되었다. 종족으로부터 분리된 성, 개인적인 연애의 감정이 등장된 것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런 과정이다. 개인의 열정이나 사랑의 감정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정서의 한 부분이다. 집단에서의 분리는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서 작용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물질적 전개과정을 통하여 혈족 중심의 집단가족은 핵가족으로 분리됨에 따라 결혼과 성은 개인적 행복을 위한 척도가 되었다. 또 사교체계가 공동체, 국가 혹은 종족의 예측된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에 비해 근대사회는 개인적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근대사회는 물질적 기초가 농업생산에서 공장제 생산으로 변화됨에 따라 노동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는 공동체에서의 이탈을 의미했고, 가부장적 호주로부터의 독립을 가능하게 했다. 물질적 기초가 확보된 젊은 남녀들은 종족보존이라든가, 신분제 상속과는 다른 자기네들만의 보금자리를 위해 낭만적 사랑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합방과 함께 근대화의 물결은 우리 민족에게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경제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자연스런 의식의 자기 전개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당위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서구의 근대 의식의 도입은 많은 부작용을 도출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의 성해방의 의미는 많은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18)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삶의 의지 1』(나남, 1990).

3.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해방의 담론

세 작가의 경우 그들의 생활 철학을 형상화한 것이 작품이고, 작품 속에 형상화된 생활정서가 흘러나온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 작가가 작품을 형상화하는 데는 자신의 세계관을 통하여 주제를 형상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품을 플랫폼화하는 구성원리로서 작용할 뿐 주제가 그대로 생활논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세 여성작가의 작품 속에 형상화된 생활정서는 생활논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삶에 직면한 근대의 문제는 절박, 질실한 것이었다.

김명순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김명순의 분신들이다. 「탄실이와 주영이」의 탄실이는 물론 김명순의 예명으로 김명순 자신임을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주영이 역시 김명순의 또 다른 분신이다. 「선례」의 선례 역시 김명순의 분신이며, 「손님」의 을순이 역시 김명순의 분신이다. 나혜석의 작품의 「경희」의 경희나 「현숙」의 현숙 역시 나혜석의 분신들이다.

세 사람의 작품은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되던 시기의 계몽적 사조에 저술활동을 시작했고 그런 만큼 대부분의 작품들이 계몽주의적 색채가 짙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몽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서술상의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술자 개입이 자주 일어나고, 사건의 갈등이 비교적 단순하며, 인물의 개성이 뚜렷하지 않고, 소설 장르에 대한, 혹은 단편 양식에 대한 의식이 없는, 소박한 의미의 이야기 요소만을 가진 작품들이다. 특히 김일엽의 경우는 더욱 심하고, 그 중 장르 개념이나, 플롯에 대한 의식을 보여준 작가는 나혜석이다. 그렇기에 소설의 장르의 특징을 따르는 분석은 힘들다. 단지 작품 속의 형상화한 주제 의식만이 의미를 가진다.

김명순이 작품들을 통하여 제시하는 내용은 페미니즘적인 내용으로 거의 일관되어 있다. 기존의 결혼 제도에 의한 희생(「의심의 소녀」, 「돌아다 볼 때」, 「모르는 사람같이」),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부모 혹은

남편과의 결별(「처녀의 가는 길」 「나는 사랑한다」), 김명순, 자신의 결별 중에 관한 작품(「칠면조」 「꿈묻는 날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의식을 주제화한 작품(「손님」 「탄실이와 주영이」) 등이다.

김명순은 기존 결혼제도에 대한 철저한 거부 즉, 자신의 개인적 자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명순의 「손님」¹⁹⁾은 을순과 삼순이, 손님인 주인성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세 인물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작가의 의식을 제시하는 인물들이다. 형제간에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혹은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상시 작가의 인생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손님인 주인성의 내면심리를 통해 작가의 전반적인 심리적 배경을 제시한다.

확실히 서울은 어두운 기분을 일으킨다. 본래 내 고향이지만 그 어두움이 어쩔 수 없이 나를 평양으로 쫓았다. 오오, 이 어두움, 이 도회 안에는 이상야릇한 여자들이다 모여들었지 그래서 그것들이 거만 다 남자의 힘들을, 시선들을, 집 앞에서 그 얼굴들 위에 초점을 박자는 즉 광을 박자는 것이지, 지혜 없는 거짓으로 된 장난이언마는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그 유혹을 피치 못하고 이끌리면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이 사회제도와 도덕적 관념에 타협하는 광고판을 그 얼굴들 위에 붙인다.(중략)

우리의 생활의식은 거짓으로 찼다. 무엇이 힘이 부족한가? 우리의 교양 중에 무엇이 결핍되었누. 역시 엄숙한 종교의 힘이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다.

-「손님」, 김상배 편, p.244.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제도와 도덕적 관념에 타협하는 것은 지혜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다. 생활의식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짓이다. 그것은 서울을 어둡게 하고 조선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김명순은 조선이 나라를 잃은 것도 진정한 사랑의 결핍, 인간에 대

19) 김명순, 『조선문단』(1926.4).

한 유기체적 사랑의 결핍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위의 인용문과 내용이 일치되는 편지문의 일부를 다시 인용해 보자.

하나 언니여, 슬프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완성과 같이 드물게 있습니다. 아득거리고 변하고 속이는 것이 사랑이 아님은 당연합니다.

참 사랑을 얻으면 노래하지요. 그때까지 밀어(密語)입니다. 지금 생각만은 파초잎 같이 서늘하고 무성합니다마는 장차 두 영혼이 융합한 이후의 땅위를 걷는 노래는 바다 같이 짙고

피 같이 붉으리다. 사랑이 사랑이 민족의 설움을 안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때에는 내 노래에 바람 같은 저수, 호수 같은 위로, 태양 같은 노염을 붙쳐서 곡조를 읊어줍쇼. 그러면 그때까지 쓰지요!²⁰⁾

위의 인용문은 소군(昭君)언니라는 상해에 거주하는 음악가로부터 노랫말로 시를 하나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인용문에서도 참 사랑을 얻기는 인격완성이 어렵듯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참 사랑을 얻게 되면 민족적 설움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그때는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리고 있다.

김명순에게 사랑의 실천은 바로 근대적 개체적 자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의 형식인 것이다. 즉 김명순의 근대적 자아인 자아 정체성의 확인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그 사랑은 기존 질서를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가능했다. 김명순의 개인적 사랑의 실천은 자아정체성의 실현이면서 조국의 독립과 연관 되어있다.

김명순의 기존질서에 대한 거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된다. 김명순은 자신이 바로 가부장 제도에 대한 철저한 피해자로서 당대의 기존 질서와의 타협은 바로 불의와의 타협이 된다. 김명순의 기존질서에 대한 도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20) 김명순, 「系統없는 消息의 一節」, 김상배 편, 앞의 책, p.386.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조선 전체에 대한 거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내가 성장한 나라는 약하고 무식하므로 역사적으로 남에게 이겨 본 때가 별로히 없었고 늘 강한 나라에 업심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경우에서 벗어나야겠다. 벗어나야겠다. 남의 나라 처녀가 다섯자를 배우고 노는 동안에 나는 놀지 않고 열두자를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²¹⁾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김명순에게 근대적 자아의 실천은 바로 자신을 둘러싼 구질서의 철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근대적 자아의 실천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김명순에게 근대적 자아의 실천은 사랑의 실천이다. 이 사랑의 실천은 '나'가 '나'이기 위해서 '나'를 통합해야 하는 자아의 탐구로써의 여행의 행로이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세계와의 합일을 꿈꾸기 위한 여행행로이기도 하다.

소연씨,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한 이상을 세우고 거기 합당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적 사랑은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의 공명이 있고 정신상 위안이 있으면 용해되는 헤어지지 못할 것입니다.²²⁾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명순에게 있어 사랑은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한 이상을 세운 합당한 것'으로 세속적인 남녀간의 사랑과는 다른 근대적 자아를 기초로 한 너와 나의 합일을 꿈꾸는 새로운 사랑의 실천이다. 김명순의 사랑의 실천은 철저한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질서의 도래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난다.

그런 인물들을 가정 안에 벌써부터 넣어버리면 이 사회운동은 누가 해놓을는지요, 조선의 가족제도가 웬만한 것 같으면 결혼을 하고도 못할 바가 아니

21) 김명순, 「김탄실」·「봄네거리에 서서」, 『신여성』(1924.3), p.195.

22) 위의 책, p.219.

지만…… 아마 우물에 빠져서는 우물물을 치지도 못하고 제방을 쌓지도 못할
걸요. 좀 더 사회에 내놓아보지요.²³⁾

위의 인용문에서 ‘그런 인물들’이란 김명순과 같은 선각자적인 신여성
을 지칭한다. 김명순의 사회운동이란 사랑의 실천이다. 이는 합리적 자아
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자아의 실천이며, 또 나의 합일, 자아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사회, 세계와의 합일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
존의 가족제도, 결혼은 부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김명순의 사랑의 실천
은 작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는가.

김명순의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연애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당연히 기존의 제도인 결혼은 부정된다.

김명순을 비롯한 두 명의 연애관은 근본적으로 엘렌케이의 신정조관
에 기초한 연애론을 펼치고 있다. 즉 어떤 결혼이든 거기 연애가 있으면
그것은 윤리적 결합이며,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거친 정식결혼이라도 연
애가 없으면 그것은 부도덕한 결합일 뿐이라는 것이다.

엘렌케이의 신정조관은 서구의 합리적 사회구조, 핵가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에서의 결혼을 기초로 한 사랑관이다. 일본이나 우리 나라에서
의 결혼은 한 개인과 개인의 사랑을 기초로 한 결혼이라기보다는 가문혼
의 성격이 짙었다.

또 연애는 비밀상적인 낭만적 영역이며, 결혼 생활은 일상의 영역이다.
물론 처음 결혼을 시작할 때는 사랑에 기초한 결혼으로 시작되지만, 일
상을 반복하다보면 낭만적 연애를 갈구하는 사랑은 없지만 사랑 이상의
그 어떤 것,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위무감, 가족애에 바탕한 서로에 대
한 신뢰, 등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결국 결혼은 제도의 한 부분인
것이다.

김명순의 작품 「의심의 소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품은 엘렌케이의

23) 위의 책, p.217.

신정조관에 의한 연애를, 작품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의심의 소녀」의 평양의 제일 미인이던 가희 엄마는 희대의 풍류객인 조국장과의 불행한 결혼으로 딸 가희만을 데리고 무원고립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다. 사랑과 자유를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고, 의심과 억압 속에서 결국 자살을 택하는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다. 이 작품에서는 가희 모녀의 무원고립의 삶을 통하여 결혼제도의 불합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사랑한다」의 박영옥은 현 남편인 서병호의 청혼에 못 이겨 결혼했지만, 우연히 만나 자신의 학비를 대어주고 유학을 떠난 최종일을 잊지 못한다. 최종일 또한 영옥을 잊지 못하는데, 우연히 박영옥 부부가 세든 집이 최종일의 집이었다. 새로운 재회로 둘은 다시 재결합을 시도한다. 신정조관에 의해서 박영옥의 결혼을 한 남의 아내라는 것은 최종일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령 과거를 가진 여자라 할지라도 새 애인을 구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순결한 여인과 다를없는 것이다. 결혼 생활 특히 사랑 없는 결혼생활은 신정조관에서는 정리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돌아다볼 때」는 류소연을 중심으로 한 인척들의 부부관계의 허구를 파헤침으로써 결혼제도의 불합리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류소연의 고모, 류애덕의 부부, 영어교사 시절에 만나 류소연이 좋아했던 송효순의 부부, 또 류소연의 부부들은 하나 같이 사랑이 없는 제도의 노예로서 불행한 결혼을 한 사람들이다. 단지 류소연의 아버지는 본처를 두고 류소연의 엄마를 만나 류소연을 낳고 재미있는 생활을 한다. 그러나 류소연의 엄마가 죽자 다시 본처를 찾아가지만 본처마저 죽게됨으로 철저한 자신의 짓값을 받는 불행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 작품에서도 결혼을 한 정식부부들은 모두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한 결혼제도의 희생물로 그려진다.

위에서 살핀 세 작품 모두 결혼 제도의 불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에서 살핀 대로 김명순에게 근대적 자아의 실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자신의 개인적 환경, 기존의 제도, 조선의 식민지적 상황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모든 기존의 것에 대한 불

합리성을 철저히 파헤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이상에서 보았듯이 김명순의 작품에서는 기존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한 근대적 자아가 민족의 독립이라든가 사회적 발전 등 세계와의 통합을 꿈꾸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한다. 이는 김명순은 대체로 사랑의 부재가 우리 민족의 거짓 생활의식, 남을 속이고, 비판하고,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여 험뜯고 비방하는 잘못된 의식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참사랑, 인간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존경심 즉 유기체적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웁습니다. 적어도 이 우주가 큰 조직체인 줄을 알고 공동동작(公同動作)하는 공생계(共生系)인줄을 알고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야, 남의 것을 세우려든 이 혼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야, 공동동작의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할 만한 사람이라야 능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격이 있더라도 감정적 동물인 우리는 모든 방해물을 없이하고 다 같이 태평세계에 드는 것이 아니라면 정들인 장상에 같이 나서 같이 울고 같이 꿈꾸는 부모 형제를 어찌 잊겠습니까.²⁴⁾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주는 거대한 조직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유기체적 일원으로 사회적 임무를 맡아나간다면 사회는 발전할 것이며 태평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형제 부모들을 떠날 이유가 없다. 유기체적 생명관에 의해서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고, 참사랑을 베푼다면, 혼돈의 노예-서로를 타자화시키고 소외시키지 않는-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명순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며, 이 여행은 철저히 구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당위론을 통하여, 사회와의 합일을 꿈꾸는 근대 자아의 실천이라는 화두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꿈꾸었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24) 김명순, 「손님」, 김상배 편, 앞의 책, p.249.

세계와의 합일을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혹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세계와의 합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신여성이 통합해야 하는 세계와의 합일은 신여성 그룹에서 제외된 구여성이며, 그 당대의 소외된 많은 민중이었다. 그러나 세계와의 합일을 꿈꾸던 대상자들을 자신들을 소외시키고 타자화시켰던 남자 신지식인, 혹은 일본제국자들의 선택, 그들과의 합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4. 내면화된 타자의식

인간에게 있어 자기 속에서 모든 가능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에 대해 중립적인 투명한 비어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비어있음으로 인해 다른 인간에게, 혹은 자신에게 건너갈 수 있다.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세계와의 합일을 통해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 근원적인 나의 의식 속에서는 나와 세계는 상호 제약한다. 즉 나는 세계를 통해서만 나로 의식되고, 세계는 오직 나 속에서만 정립된다. 세 여성에게 있어서 세계와의 합일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 속에 내면화된 타자의식에 의해서이다.

초기 여성문인들, 김명순이나 나혜석, 김일엽이 여성해방에 관한 글쓰기는 사회 전체와의 관계 속, 즉 과거 전통과 현대와의 문제, 남성과 여성 등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신여성이라는 자기체계 속에서 ‘신정조론’ 혹은 ‘자유연애론’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들의 글쓰기 밖으로 배제됐던 세계는 여전히 하나의 사회적 힘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사회의 저변에 잠복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힘들은 그녀들의 글쓰기와 같등하고 심지어는 그녀들을 전복시키기 위한 기회와 조우하기를 노려왔던 것이다.

19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여성에 관한 담론은 신여성교육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이화학당이나 진명여고보, 숙명여고, 한성고등여학

교, 대구 신명여학교,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등, 대다수의 신여성들은 이런 교육기관을 거쳐서 일본 혹은 미국의 유학을 거친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전통구식교육과 구분되는 현대 학교교육을 통하여 그들만이 가진 독특한 생활양식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은 사회적 출신배경, 교육자본, 문화자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학교제도와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불평등한 문화사회적 구조를 고착화하고 지배계급에 의해 정의된 문화를 주입시키는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는 기제라는 것이다.²⁵⁾

김명순이나 나혜석, 김일엽 등의 문학 작품에서 혹은 개인 생활에서 드러나는 문학적 주장들에 대해 기존의 연구자들은 ‘연애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바를 밝히는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었을 뿐, 사회체제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²⁶⁾라든지 ‘제례의 폐습, 도덕에서 벗어나려 한 여성의 자유, 방종으로 비쳐지는 그 시대에 그들은 지구상 어디에서 낙을 얻을까?’²⁷⁾ 등 당대의 현실을 외면한 그들의 개인적 연애가 결국 그들을 파국적 삶의 결말로 마감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세 여성문인들의 실제 생활과의 괴리는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비롯한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김연실전」에서는 세 여성문인들의 남성편력을 거의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남성에 비쳐진 여성들의 왜곡된 연애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 김기진 같은 카프문인들을 차치하고라도 염상섭은 신여성, 특히 세 여성문인들을 ‘자유연애의 사도’라고까지 지칭하며 ‘연애기근’ ‘사랑걸신증’ 혹은 ‘성적박테리아’가 걸린 사람들이라는 용어로 여성들을 비난하고 있다.

25) 부르디외, 『문화와 권력』(나남, 1999), p.9.

26) 김복순, 「'지배와 해방'의 문학」,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한길사, 1995), p.30~31.

27) 방금희·오경희·이선옥, 「1920년대 신여성」,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또 하나의 문화, 1998), p.77.

자유연애의 진의를 뼈뚜르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자유연애의 사도들은, 아침에 연애하다가 저녁에 버서내어버리여도 상관없고, 업습뿐만이 아니라, 그러케하는 것이, 자유연애인거나갓치 생각하며, 실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사실 오늘날의 조선에는 이러한 종류의 자유연애주창자가 수업시만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고 또는 실행할 뿐만 아니라. 그와갓치 하는 것으로써 자신이 신인(新人)인거나갓치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⁸⁾

위의 인용문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자유연애가 김동인의 「김연실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남성편력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당시의 봉건적 사고 방식에서 아직 사로잡혀 있던 남성들이, 그 당대에 아무리 진보적 지식인이라 해도, 남성들의 시각에 비쳐진 여성들의 자유연애가 온당하게 비쳐질 리는 없다.

이들 세 명의 작가들의 문학적 활동은 191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다같이 동경유학 경험을 가졌고, 김명순과 나혜석은 조선유학학생학회 기관지 『학지광』의 여성판인 『여자계』의 핵심멤버였으며, 김일엽은 『신여자』를 발간했다. 이들은 자유연애론을 바탕으로 한 신정조론을 주장했다. 그러면 이들의 신정조론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의 태도가 타락으로 보이는 것도 필경은 '우리들의 처지 경우가 부모의 이해 엮는 소위 정식 결혼을 단념한 까닭으로 항상 구도덕과 싸우고 또는 경제상으로 부자유한 우리들의 성적 생활이 대단한 동요에 있는 까닭인 줄 압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영을 다 버리고 진실한 성적 대상자가 될만한 이는 불행히 기혼남자 뿐이라고 할만하게 되었습니다.'²⁹⁾

우리가 인용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세 여성문인들의 성적 문란을 비유한 김동인의 「김연실전」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지식인 혹은

28) 염상섭, 「감상과 기대」, 『조선문단』(1925.7).

29) 김일엽, 「우리의 이상」, 『부녀지광』(1924.7).

문인들이 이 세 여성문인들을 타락한 문인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자신들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이 타락한 것으로 오해받는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결혼제도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상으로 부자유한 우리들의 성적 생활' 때문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기존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은 두 가지로, 그 하나는 결국 남성들이 일부일처제를 자처하며, 결혼 후에도 수많은 여성편력을 마다 않는 기존의 결혼제도의 대한 부정이며, 또 하나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연애 없는 결혼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기존의 전통 결혼제도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결혼제도 자체의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부부의 결혼생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록 잘못된 결혼제도에 의해서 결혼은 했지만, 결혼생활을 통해서, 집안간의 우의를 통해서, 당사자들끼리 서로 정서가 통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신여성들이 기존 결혼제도를 부정하면서, 기존 결혼제도에 의해서 결혼한 사람은 '연애 없는 결혼'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하나의 진실만을 인정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신여성들이 '인격으로나 사상으로나 연령으로나 우리의 상대자가 될 만한 이는 기혼남자 뿐³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결혼 제도에 의해서 결혼한 신여성이 아닌 구식여자들을 타자화시키는 것이다.

그 당시는 당위론적으로는 유교적 가부장적 의식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여성들의 교육이 보편화되어 신여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봉건적이었고, 신여성들이 다니던 학교는 기생출신이나 소실출신의 딸들만 다니는 학교라고 해 '기생학교'라고 할 정도였다. 또 더군다나 문학하는 사람까지도 마치 탄따라의 일종으로 생각, '뜻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은 못할 것으로 배척³¹⁾'을 받았

30) 김일엽, 『부녀지광』(1924.7).

31) 전영택, 앞의 글.

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여성들의 자유연애 논리는 보편적인 정서라기보다는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 신교육을 받은 그룹내의 환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연애라는 환상에 참여하는 신지식 그룹의 행위와 그를 가능케 했던 사회의 당위적 분위기—한일합방과 함께 온 봉건성을 탈피해야 한다는—의 산물일 뿐이다. 신지식 그룹이라고 하지만, 신지식 남성들은 여전히 봉건적이었고, 신여성들만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³²⁾ 그 당시 보편적 생활정서와는 거리가 먼 ‘체계적인 착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³³⁾

그들의 자유연애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보자.

김일엽의 신정조 관념에 의하면 ‘정조는 애인에 대한 타율적 도덕적 관념이 아니고 애인에 대한 상상력의 최고조화한 정열’ 혹은 ‘단지 사랑을 백열화시키는 연애의식의 최고절정’이다.³⁴⁾ 또 나혜석에 의하면,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 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라,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거와 같이 임의 용지로 할 것이요,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김일엽의 신정조 관념이나 나혜석의 신정조 관념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지니지만, 당대의 삶의 토대를 가진 정상적인 생활인으로서의 불가능한 이상적 관념일 뿐이다.

연애 자체의 낭만적 정열과 사랑을 바치는 정조, 그것 자체의 의미를 지닐 줄 모르지만, 나혜석의 말처럼 새로운 애인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연애의식과 새로운 정열을 바쳐야 하는 신정조 관념은 삶의 토대를 떠난 부박한 삶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김일엽이 지적한 대로 경제상으로 부자유한 자신들의 성적방향을 위해 새로운 연애의식을 정비한 새로운 정열을 가지지 않는 한, 신정조 관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어떤 인간이든 그 당대의 삶의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32) 김동인은 비롯한, 김기진, 염상섭 등의 강한 반발과 1958년의 좌담회에서조차 신여성들을 노리개쯤으로 회화화하는 데서도 그들의 봉건성을 엿볼 수 있다.

33) 부르디외, 『문화와 권력』(나남, 1999), p.83.

34) 김일엽, 앞의 글.

그들이 주장한 바, 즉 기존의 결혼제도가 남성들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남성들만을 위한 부당한 제도라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그들이 술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들 또한 남성들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즉 기존의 가부장적 제도를 비난하고 그것의 대안으로 제시한 진정한 사랑이 내재된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이, 그것 자체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김명순이 지적한 대로 쉽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온다고 해도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혜석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사랑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을 가꾸는 자신의 주체의지를 길러야 한다고 했다.³⁵⁾

김명순이나 김일엽, 나혜석의 글쓰기나 실제 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보다는 왜곡된 사랑의 형태를 보여준다. 김명순은 김동인의 「김연실전」 외에는 소문에 의해서 연애 소문이 전해질 뿐, 실제 연애에 관해 글쓰기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김연실전」 역시 허구를 바탕으로 한 과장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전영택의 글에 의하면 김명순은 결국 '남자에게 속고 버림을 받고 하는 동안의 쓰라린 경험'으로 피해의식만 키워 온 것이다.³⁶⁾ 김명순은 자신이 오해를 받아왔을 뿐이지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35) 나혜석, 「나를 잊지 않는 행복」, 『신여성』(1924.8).

36) 김동인의 「김연실전」에서 철저히 여성 문인들을 타자화시키는 것은, 그 당시 세 여성들이 다 살아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마치 죽어있는 인물처럼 인간을 회화화시켜 자신의 노리개처럼 악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남성문인들이 여성문인에 대한 회화화 혹은 유희적인 기분으로 서술한 것은 1957년 「폐허 동인좌담」, 『신태양』(1958.2)이라는 형식으로 서술한 곳에서도 똑같다. 이 좌담에는 이병수(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변영로, 황석우, 오상순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전영택의 글에서는 김명순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이 엿보인다. 위의 좌담회에서는 김명순을 '연애대장' '오펜바' '남성다운 여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전영택은 '천생인물이 곱고 태도가 귀엽기 때문에 탄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것이다. 그렇게 부정을 했지만, 결국 김명순은 그 피해의식으로 몸과 정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 남자와의 동거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김일엽의 몇 번의 결혼도 경제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나혜석의 이혼문제도 결혼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 김명순은 남자와의 동거생활이 끝나면서 ‘카페로 다방으로 낙화생과 담배를 팔러다니는’ 모습을 전영택에게 목격되었다.³⁷⁾

결국 김명순이 글쓰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피해의식이다. 최초의 피해의식은 유학 중 동경에서 최초로 사랑하게 된 남자와의 관계로 인한 것이다. 자전적 형식의 소설인 「주영이와 탄실이」에서는 그 사건으로 김명순 본인이 정신이상까지 생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명순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그들의 관계가 왜곡 와전되어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연애사건이 소문으로 확산되어 알려진 것만도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인데 마치 김명순이 남자를 유혹, 성 관계를 먼저 유도했다는 식으로 와전되어 동경 유학생들에게 퍼졌다는 것이다.³⁸⁾ 더군다나 김명순의 출신 내력까지 곁들여서. 김명순은 비방과 모략을 좋아하는 조선인의 근성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언제나 오해로 받는 누명 속에—네 몸이 결백했건만 자백도 못하고 네 몸에 어울리지 않는 누덕이를 입히고 살아왔다.³⁹⁾

너의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지, 그러기에 혈통이 있다는 것이지.⁴⁰⁾

더욱이 어떤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음해해서 세상에 광고하는 것은 무슨 죄악일까요⁴¹⁾

37) 전영택, 「김탄실과 그 아들」, 『현대문학』(1955.4)

38) 김동인, 「김연실전」, 김상배 편, 앞의 책.

39) 김명순, 「네 자신의 위에」, 위의 책, p.387.

40) 김명순, 「돌아다볼 때」, 위의 책, p.209.

위의 열거된 인용문은 대부분의 수필이나 소설 작품에서 종종 나오는 진술이다. 얼마나 김명순의 피해의식이 심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명순은 어릴 때, 적모(호적상의 생모, 아버지의 본부인)에게서부터 ‘엄마를 닮아서’ 혈통이 나빠서’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타자들 속에서 소외의식은 뿌리깊은 것이었다. 이 소외의식은 동경 유학시 유학생들의 음해로 김명순에게는 병이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의식으로 자리잡는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김명순의 앞으로 전진하려는 발걸음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김명순은 자신의 학업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실천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 것은 소심하고 결벽증이 심한 김명순의 피해의식 때문이다. 이 피해의식은 그 당시 사람들의 완강한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서, 김명순이 기생 출신의 천한 여자라는 것으로 김명순을 타자화시켜, ‘자유 연애의 사도’나 ‘연애결신장이 걸린 성적 박테리아’⁴²⁾ 등으로 그 당대의 사회에서 소외시킨다. 김기진은 아예 김명순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정한 불순한 혈액’을 들어 ‘유한 계급의 감정의 유희’라며 김명순 문학 자체를 전부 부정한다.

그는 평안도 기질인 굵고도 자기 방호하는 성질이 만흔 천성에 여성통유의 애상주의를 가미해야갓고 그 우에다 연애문학서류의 핑키칠을 더덕더덕 붓치 여농코 어부자식이라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구부정하게 휘어져가지고 처녀때에 강제로 남성에게 정벌을 밟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한층 히스테리가 되어가지고 문학중독으로 말미암아 방분하여졌다. 그리고 이것들 제요소를 층층으로 싸이는 그 중간을 꾸여뜯코 흘르는 것이 외가의 불순한 부정한 혈액이다.⁴³⁾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인신공격이라 할 정도의 김명

41) 김명순, 「손님」, 위의 책, p.247.

42) 염상섭, 「감상과 기대」, 『조선문단』(1925.7).

43) 김기진, 「김명순에게 대한 공개장」, 『신여성』(1924.11).

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결국 김명순의 의식을 파괴시키고, 김명순의 내면 속의 자아를 분열하게 한다. 김명순이 부정한 혈통의 출신이라는 것과 김명순과 상관없는 성적인 비행을 조작 폭로시킴으로써 김명순을 철저히 타자화시켜 그 당대 사회와 고립시키자는 것이다. 남성문인들이 혹은 그 당시의 봉건적 사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김명순을 타자화시키기 위한 전략, 즉 그 당대의 봉건적 사상의 소유자들의 논리에 김명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김명순은 결국 사회와 고립된다. 그녀의 심한 피해의식은 결국 김명순이 그들의 논리를 극복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 스스로도 자신 속에 내면화된 봉건성을 극복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근대 자아의 형성이 물질적인 기반과 함께 서서히 진행되어 자연스런 과정을 밟아 형성되지 못했고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도기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녀들의 근대 논리가 경제적인 독립과 더불어 형성되었다면, 그녀들이 남성들을 향한 대응 논리가 필요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해방논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녀들의 해방논리 속에는 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략되어 있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연애 없는 결혼’은 육적인 매춘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토대는 봉건 여성의 사정과 다를 바가 없었다. 나혜석의 몰락의 과정이나 김일엽의 몇 번의 결혼도 경제적인 요인이 매개되어 있었고 그들 또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의 작품이나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는 해방의 실천이 또 다른 그룹, 구 봉건 사상을 가진 구식여자들이나, 당장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중들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실제 삶과 분리된, 그들만의 해방 논리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서야 꺾팔이 혹은 담배팔이(김명순), 미술학원(나혜석), 불교예의 귀의(김일엽) 등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사회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5. 문학적 진실의 문제

문학의 심미적 반영은 현실이라는 인식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마주 선 채, 그러나 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독립된 동시에 합일된 통일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⁴⁴⁾ 즉 객관적 현실의 전체적 과정에 대한 올바른 반영의 필연적 계기가 될 때 삶의 올바른 반영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의 올바르지 못한 반영이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반영에 그치게 된다.

세 신여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학과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몸의 정치학은 육체와 정신, 주체와 객관, 이성과 감성의 합일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서 진실과 마주서 있다. 근대 계몽 이성중심주의는 하나의 진리체계, 혹은 거대담론만을 인정하는 세계에서는 생명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성,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몸의 정치학을 통해 신여성이 이루려고 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은 바로 근대적 개체적 자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의 형식인 것이다. 그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며, 이 여행은 철저히 구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당위론을 통하여, 사회와의 합일을 꿈꾸는 근대 자아의 실천이라는 화두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은 여성으로서 기존 결혼제도의 희생자로서의 삶보다는 주체의식을 가진 자신들의 삶을 불태운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히 기존의 사회제도나 도덕을 부정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고, 그들은 그 길만이 진리라고 믿었다. 한일합방은 그들의 국가의식을 자극했고, 그 자극은 기존의 제도나 도덕의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새로운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극복하려고 한 사회제도나 도덕적 관습은 그들의 내면 속에 깊이 뿌

44) 차봉희 편저, 『루카치의 변증-유물론적 문학이론』, p.73.

리 박혀 있는 타자의식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자신 속에 자리잡고 있는 타자의식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주장이 또 그들의 삶이 지향하는 바가 옳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들의 신념체계가 현실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들의 신념체계가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나와서 합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와서 합일은 세계와의 합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념체계가 신여성이라는 그룹 안에서는 진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외의 바깥에서는 ‘타락’ ‘방종’의 얼굴로 비춰졌다. 그들에 대한 끝없는 지탄과 비난은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타자의식을 통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

문학의 진실성은 그 당대의 현실과 전체적인 연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자유연애라는 우연적 계기가 그 당대의 필연성-경제적인 토대라든가, 일본 제국주의하의 현실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려졌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럴 때만이 문학 작품이 현실적 힘을 가진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소외시키지 않는 현실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역동적인 힘이며 이는 바로 여성문학의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 등 흐름의 몸의 미학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Abstract

Experience of Modernity and Altruism Shown in the Modern Feminism Literature

Lee, Duk - Hwa

It was a practice of love that modern women pursued through the politics of *Mom(몸)*. The practice of love is a form of life that obviously

discloses a modern individual ego. The practice of love shown in their works refers to a journey in search of 'self', and through the assertion that it can be made by a complete downfall of the conventional order, they attempted to solve the issue: the practice of the modern ego that desires to unite with the society.

Kim, Myung-Soon, Kim, Il-Yeop and Na, Hye-Seok were women who burnt their lives with own identity, rather than to live as victims to conventional marriage systems. They totally denied existing social systems and morals, and tried to settle their identity, which they believed to be truth.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stimulated their nationalism, which led them to think there would be a way to newly settle their lives through complete denial of conventional systems and morals. But the conventional systems and morals that they strived to get over had been settled deep inside as an outsider. Finally their failure to overcome the otherness ended in ruin.

Right as their assertion and belief in their lives may be, when their belief system conveyed through real life is not accepted by the real world, their belief is apt to be shaken. This is because one's ego can only be attained through 'unity of self', and the unity of self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union with the world'. Their belief system was appeared as truth in the world of modern women, but was viewed as 'corruption' or 'self-indulgence' from the outside world. The long-lasting reproach and censure imposed on them, disrupt their insides through the otherness.

The truth of literature represents in entire relation with reality of the times. It is available only when free love, serving as a momentum, is represented in detail in relation with the reality in the colonial era, or the financial base : the necessity of those times. It is those times when the literary works are provided with real strength. It is dynamic strength that

is created by diversified relations with reality without isolating anyone, and that coincides with aesthetics of *Mom*(母) including the diversification, interrelations, circulation, and so on in the literature of modern women.

